

제주도의 아동복지 방향과 대책

김 양 순*

目 次

- I. 서 론
- II. 본 론
 - 1. 아동복지 정의 및 대상
 - 2. 아동복지시설 및 그 실태
 - 1) 보육시설 실태
 - 2) 모자보호시설 실태
 - 3) 소년·소녀 가장 실태
 - 4) 유아원 시설 실태
 - 5) 특수아동복지시설 실태
 - 6) 부녀 아동상담소 실태
 - 7) 일반아동을 위한 복지실태
 - 3.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그 대책
- III. 결론 및 제언
- 참 고 문 헌

I. 서 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면, 신라 제2대 남해왕 15년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기근으로 굶주린 백성들에게 국고를 열어 식량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 사회복지활동의 시작이었다. 신라 3대 유리왕 시대에는 부모가 없는 어린이들에게 급식과 양육을 도와주는 구빈사업이 실시되었다.

근대적 아동복지사업은 1950년 6.25동란으로 인한 전쟁고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육시설에서부터 본격적인 아동복지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전쟁후 사회혼란속에서 아동에 대한 단순한 보호와 식량공급차원의 영세적 복지사업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도 지나

*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침이 없을 것이다.

1960년대에 아동복지법의 공포로 아동복지사업은 행정면에서 크게 변화하였으며, 보다 전문적인 성격을 띤 복지사업으로 성장하였다.

현대사회는 인구증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 이혼의 증가 등의 제반 문제들이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의 욕구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전쟁이 끝난후 40여년이 지난 현재의 아동복지사업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또한 미래의 아동복지사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인가?

제주도라는 지역적인 한계성과 그 특성을 포함하여 미래의 제주도 아동들에 대한 복지의 방향과 그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데, 본 조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범위를 보육시설, 모자보호시설, 소년소녀가장, 유아원시설, 특수아동복지시설, 부녀아동상담소, 일반아동을 위한 복지시설 등으로 한정하였으며, 위의 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II. 본 론

1. 아동복지의 정의와 대상

아동에 대한 정의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8세 미만의 모든 인간을 포함한다.

아동복지(Childwelfare)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회의 건전한 개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일반아동, 특수장애아동 모두가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가정, 지역사회, 공·사단체, 국가가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봉사(Service)와 보호를 해주는 조직적 활동을 아동복지사업이라 한다.

아동복지대상의 범위는 첫째, 심신상의 문제를 지닌 아동들, 즉 지능·정신·신체·정서 장애아동, 허약아동, 불량·비행아동들을 말하며, 둘째, 가정환경의 문제를 지닌 아동들, 즉, 보호자 결여, 보호자의 빈곤, 보육의 결여, 학대, 방임, 유기상태에 있는 아동들이며, 셋째, 사회문제로서, 인종, 국적, 계급, 소속지역의 격차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를 지닌 불우 아동들을 모두 포함한다.

아동복지 사업의 내용은, 복지대상의 성격과 그 내용에 따라 사업방법이 다르지만 첫째, 부모의 역할을 지지해주는 사업(Support)으로서, 예를 들면 미혼모와 편모의 자녀들에 대한 보조, 빈곤 가정 아동들에 대한 보조 사업이 있으며, 둘째, 부모의 역할을 보충해 주는 사업(Supplement)으로서, 탁아사업등이 있으며, 셋째, 부모의 역할을 대리하는 사업(Substitute)으로서 위탁사업, 보육시설사업, 입양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넷째, 요보호 아동을 위한 사업으로, 신체·정신·지능·정서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수학교, 복지시설사업을 들 수 있으며 다섯째, 모든 일반아동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서, 어린이회관, 어린이공원 등의 아동휴양시설을 설치하여 아동들에게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정서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을 들 수 있다.

2. 아동복지시설 및 그 실태

1) 보육시설 실태

제주도 아동복지 사업중 보육시설의 시작은, 6.25동란중 미국의 헤스 대령이 전쟁고아들을 비행기로 제주도에 우송하여 고아원을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제주도내 5개 보육원 중에서 4개의 보육원이 1950년도에 설립된 것을 보면 전쟁고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도부터 1991, 7월 현재 보육시설 연도별 수용인원에 관한 사항을 <표 1>에서 보면 수용인원의 숫자가 점점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유는 보육시설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개인의 가정에서 소년 소녀가장으로 독립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경제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사회가 경제적으로 불황을 겪었던 시대에는 수용인원의 숫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표 1> 보육시설 연도별 수용인원

년 도	수 용 인 원(명)
1976	635
1977	635
1978	619
1979	602
1980	560
1981	504
1982	536
1983	512
1984	507
1985	547
1986	555
1987	544
1988	535
1989	509
1990	453
1991 (7월 현재)	421

보육소의 아동들은 대부분 부모가 사망하여, 고아가 된 경우 또는 이혼, 별거, 재혼으로 인하여 양육이 불가능해진 경우, 부모는 있으나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들이다.

1990년 7월 31일 현재 제주도내 아동복지시설 수용자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현황

(’90년 7월 31일 현재)

시설명	구분			연령						학력				
	수용인원	계	남	여	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	미취학	국재(졸)	중재(졸)	고재(졸)
계	485	270	215	12	20	197	120	105	31	47	224	127	86	1
홍익보육원	106	64	42		3	48	31	22	2	9	51	27	18(1)	
제주보육원	108	64	44		2	45	34	26	1	2	58	32(3)	13	
영진영아원	90	48	42		2	39	18	25	6	4	38	27	21	
제남보육원	103	55	48		6	38	19	26	14	8	43(2)	25	23(2)	
천사보육원	58	29	29		6	21	17	6	8	7	29	12(1)	3(5)	
홍익영아원	12	6	6	12						12				
상담소보호소	8	4	4		1	6	1			5	3			

보육소에 있는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독립하여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은 연고자 인도, 또는 직업을 찾아 자립하게 된다.

〈표 3〉은 보육시설 및 입소·퇴소자 현황이며, 〈표 4〉는 퇴소자의 유형에 관한 것이다.

〈표 3〉 입소·퇴소자 현황

시설명	’88		’89		’90	
	입소	퇴소	입소	퇴소	입소	퇴소
계	76	86	72	95	63	100
홍익영아원					27	17
홍익보육원	25	22	16	20	3	19
제주보육원	4	4	4	20	6	21
영진영아원	17	21	4	18	7	17
제남보육원	10	20	15	11	2	12
천사보육원	8	7	7	2	5	7
임시보호소	12	12	26	24	13	7

〈표 4〉 퇴소자 유형

구분 년도별	계	연고자인도	취업	전원조치	입양
'87	106	80	16		10
'88	86	55	22	2	7
'89	95	55	22	8	10
'90	100	47	36	3	14

〈표 4〉에서 보면 보육시설 퇴소자 중에서 연고자 인도의 숫자는 점점 감소하는 한편, 취업자립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표 5〉 국내 입양 현황

구분 년도별	입양 목표	입양 신청 가정	성 별			연 령 별			비 고
			계	남	여	계	3월 미만	3월~ 1세미만	
'85			10	6	4				
'86			11	5	6				
'87			10	3	7				
'88			7	2	5				
'89	21	36	13	6	7	13	8	5	
'90	60	52	14	7	7	14	8	5	1
'91	60	18	7	3	4	7	8	1	'91. 6. 30. 현재

〈표 5〉에서 보면 국내 입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입양에서 남아에 대한 선호도에 차이가 없으며 여아를 선호하는 것을 보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남아 선호사상은 입양에서는 점점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양자의 연령은 3개월에서 1세미만 아동으로서 어린시절의 입양을 원하고 있으며 1세이상의 아동이 입양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나타났다.

참고로 1991년도 현재 전국 영육아 시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전국 영육아 시설 비교

전		국				제주도						비율(%)	
계		영아시설		육아시설		계		영아시설		육아시설			
시설 수	수용인원 (정/현)	시설 수	수용인원 (정/현)										
261	27,028		3,232		23,796		520		30		490		2
	/		/		/		/		/		/		/
	22,535	38	2,388	223	20,147	6	421	1	9	5	412	2.3	2

2) 모자보호시설 실태

제주시에서 설립되어 있는 모자원은 1952년도에 시작되어 1991년 7월 현재 42세대 148명의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대지 1,457평에 건평 550평, 4동의 아파트형의 건물에 50세대를 위한 4평형의 방이 마련되어 있다.

모자원의 시설운영은, 국비, 지방비, 자비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980년도 부터 1989년도까지의 보호인원 실태는 〈표 7〉과 같다.

〈표 7〉 모자원 연도별 보호인원

연도별	입소인원		퇴소인원		연보호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80	12	57명	11	55명	35	154명
'81	12	51	11	53	36	156
'82	7	28	7	29	36	155
'83	5	23	5	18	36	161
'84	14	56	14	67	35	150
'85	9	26	9	40	35	148
'86	7	26	7	23	35	140
'87	8	33	8	36	33	139
'88	14	48	11	44	38	141
'89	12	44	10	40	40	146
계	100	392	93	405	359	1,490

3) 소년, 소녀가장 실태

소년 소녀가장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정착하게 된것은 1987년부터이며, 이들은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한다.

1987년도부터 1991년 현재 소년, 소녀가장의 숫자는 <표 8>과 같다.

<표 8> 소년, 소녀가장 실태

년 도 별	세 대 수	인 원
1987	93	186
1988	93	176
1989	102	193
1990	122	213
1991 (7월 현재)	128	237

소년, 소녀가장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법정생활보호대상자의 보조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1991년 6월 30일 현재 소년, 소녀가장세대 현황은 <표 9>와 같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국비, 지방비, 그리고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

<표 9> 1991년도 현재 소년, 소녀가장 현황

○ 世 帶 別

(명)

구분 시군별	합 계			소년소녀가장			세 대 원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계	237	135	102	128	80	48	109	55	54
제 주 시	72	44	28	33	18	15	39	26	13
서귀포시	45	22	23	27	16	11	18	6	12
북제주군	73	46	27	42	31	11	31	15	16
남제주군	47	23	24	26	14	12	21	9	12

○ 年 齡 別

(명)

구 분	계	0~5세	6~10	11~15	16~18	19	20	21세이상
계	237	3	27	100	83	9	9	6
세대주	128		8	41	61	9	9	
세대원	109	3	19	59	22			6

○ 學 歷 別

(명)

구 분	계	재 학							미 재 학				
		계	미취학	국재	중재	고 재			소계	무학	국졸	중졸	고졸
						소계	실업	인문					
계	237	191	3	52	66	70	51	19	46	6	11	12	17
세대주	128	99		14	29	56	40	16	29		5	8	16
세대원	109	92	3	38	37	14	11	3	17	6	6	4	1

○ 불우아동 결연 현황

구 분	대 상	결 연	구 좌 수	후원금액천원	비 고
합 계	772	772	1,813	80,965	
시 설 아 동	412	412	732	33,691	
소년소녀가장	237	237	780	32,878	
빈곤결손가정아동	81	81	207	11,941	
모자시설아동	42	42	94	2,455	

4) 유아원시설 실태

탁아소 혹은 유아원, 어린이집 등의 명칭으로 불리우는 이 시설은 보통 5세미만의 모든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며, 조기교육의 일부를 담당하는 장소이다.

유치원에 다니기 이전의 아동들은 대부분 유아원에 다닐 수 있다.

제주도내 유아원은 1964년도부터 시작되어 해마다 그 숫자가 증가하였으며, 1991년도 현재는, 정부지원 및 사설 유아원을 모두 포함하면 약 60여개소가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내 정부지원 탁아소는 16개소로서 1,069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전국 수준으로 보면 약 2%의 범위에 해당된다. 전국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708개소이며, 아동의 숫자는 약 52,251명이다.

또한 개인이 가정에서 실시하는 가정보육시설의 하나인 놀이방은 대부분 사설이며, 16개소에 약 231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고 있다. 제주도내 77개소의 유아원, 놀이방 등에서 아동복지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의 숫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제주도내 5세미만의 아동의 숫자를 감안할 때 소수의 아동들만이 이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가정에서 보호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989년도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내 유치원의 숫자는 121개소이며, 약 5,856명의 아동이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의 아동들을 위한 조기교육의 장소인 유아원과 유치원에서 조기교육의 혜택 또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의 숫자는 15,000여명 이내이다.

<표 10> 1991년도 현재 유아원 실태

시 · 군 별	시 설 수	현 원
제 주 시	28	3,972
북 제 주 군	14	781
남 제 주 군	10	430
서 귀 포 시	9	686
계	61개소	5,169명

<표 11> 아동인구 현황

연령별 시군별	인 구			연 령 별					비 고
	총인구	아 동	비 율	계	0~4	5~9	10~14	15~17	
계	514,608	172,008	33	172,008	34,103	48,962	51,088	37,855	
제 주 시	232,687	80,344	35	80,344	17,671	23,756	23,068	15,848	
서 귀 포 시	88,292	29,132	33	29,132	5,856	8,392	8,567	6,317	
북 제 주 군	108,805	34,628	32	34,628	5,692	9,253	10,815	8,868	
남 제 주 군	84,824	27,904	33	27,904	4,884	7,561	8,637	6,822	

※ 全國對比 : 인구 1.2%, 아동 1.2%

5) 특수아동 복지 시설

제주도내 특수학교중 하나인 영지학교는 1951년 맹아, 농아를 위한 1학급으로 제주북국민학교에서 분리되어, 특수교육을 시작한 이후, 1971년도에 비로서 맹인학교 설립인가를 받게 되었다. 현재 공립특수학교인 제주영지학교는 유치부 1학급, 초등부 10학급, 중등부 4학급으로 모두 15학급의 106명의 학생들의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시각, 청각장애 아동들이며, 지체부자유 아동, 정신장애아동도 포함되어 있다.

정신지체아동들을 위한 특수학교는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설치되어 있는 제주영송학교가 있다. 또한 정신지체아동들의 보호시설소인 사립 아가의 집이 있으며, 이곳 아동들중 교육 가능한 아동들

을 위하여 제주 영지학교에서 분교 1학급을 만들어 파견교사가 교육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공립·사립을 포함한 특수학교의 모든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며, 전 학생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기숙사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통학이 가능한 학생들은 각 개인의 가정에서 통학 버스편을 이용한다.

1991년도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에 2개의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모두 330여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 영지학교의 경우를 보면, 학생수 106명에 교사의 수는 유치부 1명, 초등부 12명, 중등부 9명으로 모두 22명의 교사가 일반교육, 치료교육, 직업지도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특수교사들은 각 학생의 특성에 따라 각 분야별로 특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초등부와 중등부에서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과정을 모두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장애자복지회관이 1988년도에 건립되어 장애아동들에 대한 상담 및 한정평가, 사회심리재활, 심리검사 및 치료, 개별·집단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재활 분야에서는 학령전 아동들에게 특수교육, 조기교육, 통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성인들에게는 의료재활, 직업재활, 자립작업장운영을 통하여 그들의 기능을 개발시켜 주며, 생활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회관의 운영은,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상담, 심리치료 등의 전문자격증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6) 부녀·아동상담소 실태

제주도에 부녀·아동상담소는 1985년도 아동복지법 제8조, 제주도 조례 1239호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상담소의 주요업무는 첫째, 부녀자 및 아동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둘째, 아동의 일시보호, 셋째, 요보호 부녀자 자립지도 및 직업알선 등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이다.

〈표 12〉 아동 상담 실적

년 도 별	상담인원	조 치 상 황					비 고
		조 언	시설입소	연고자인도	직업알선	기 타	
'88	291	246	18	18		2	
'89	109	69	20	19		1	
'90	121	113	6	2			
'91	69	62	4	18		3	'91.6.30현재

7) 일반아동을 위한 복지실태

아동복지의 대상안에는 일반아동들 역시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매우 미흡하

다. 제주도내 놀이터 시설이외에는 특별히 아동들을 위한 휴양시설이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광지로서의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휴양시설이 급증하는데 비하여 아동들을 위한 휴양 시설을 갖추는데는 거의 무관심하다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제주도내 놀이터 현황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놀이터 현황

○ 시설 주제별

(단위: 개소, ㎡)

주제별 시군별	계		자치단체		개인시설		공공시설		기 타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계	123	66,802	21	33,828	32	15,299	51	8,728	19	8,947
제 주 시	76	46,704	21	33,828	7	5,115	42	6,652	6	1,109
서귀포시	17	7,104			5	4,144	8	1,986	4	974
북제주군	11	7,742			4	1,637	-	-	7	6,105
남제주군	19	5,252			16	4,403	1	90	2	759

○ 관리 주제별

(단위: 개소, ㎡)

주제별 시군별	계		자치단체		지역주민		개 인		기 타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계	123	66,802	23	35,020	30	12,494	51	10,341	19	8,947
제 주 시	76	46,704	21	33,828	7	5,115	42	6,652	6	1,109
서귀포시	17	7,104	2	1,192	3	1,339	8	3,599	4	974
북제주군	11	7,742	-	-	4	1,637	-	-	7	6,105
남제주군	19	5,252	-	-	16	4,403	1	90	2	759

○ 전국 아동전용시설 현황(1990년말 현재)

(단위: 개소)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	아동회관	공연장	전시장	야영장	숙박및휴양시설	체육관
7,802	838	22	16	24	113	10	51

3.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그 대책

제주도내 아동복지시설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되어야할 사항, 보충되어야할 사항, 그리

고 새로운 대책을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육시설

보육시설에서 보충되어야할 사항은, 만 18세가 되어 보육소를 퇴소해야만 하는 청소년·소녀들을 위한 자립지원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퇴소자들은 대부분 연고자인도, 취업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아직 취업이 가능하지 못한 18세이상의 청소년들이 자체보육인원 485명중 31명이 된다. 이들을 위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간동안 임시보호할 수 있는 자립지원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내입양을 더욱 적극적으로 주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양에 대한 홍보,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위하여 매스컴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2) 유아원 시설

제주도내 유아원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유아원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일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유아원에 다니는 아동중 70%가 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들로 나타나, 전일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의 직업이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직업이 아닌한 유아원은 전일제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유아원이 부모로부터 1만원에서 10만원이상 범위의 보육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육비는 아동들의 간식과 전일제의 경우 점심 비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유아원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유아원에 다니는 5세미만의 아동의 숫자는 약 5천여명으로 제주도내 5세미만 아동의 숫자('88년도 통계 43,380명)를 약 5만여명으로 추산하면, 약 10%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나머지 90% 아동들은 가정에서 형제 자매들, 조부모, 혹은 부모와 함께 지내거나 또는 가사보조원에게 맡겨지거나 심하면 혼자서 지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아동들의 건전한 사회성, 인성발달을 위하여서도 어린시절 같은 나이 또래의 아동들과 함께 지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유아원 시설이 대폭 증가하여야 한다.

아동기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유아원-유치원 포함-교사의 자격을 좀더 강화함이 바람직하다. 유아교육과, 아동복지학과, 아동학과 등 4년제 대학졸업생을 채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2년제 전문대학졸업생-전문대학이 4년제가 되면 더욱 바람직하다. -들에게는 특별한 교육연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들 교사들에 대한 대우는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의무교육의 연령을 현재 7세에서 5세로 낮추어, 유치원과정에서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면, 유아원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6세 어린이들이 유아원에 다니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3) 특수아동 복지시설

제주도내 공립 특수학교인 영지학교는 교육과정이 중등부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졸업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원하면 타도에 있는 특수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한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시각·청각장애, 지체부자유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영지학교내에 고등부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중등부 졸업생이 여학생인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조차 자녀를 타도에 있는 특수고등학교에 보내는 것을 꺼리게 됨은 당연한 일이다. 아동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복지의 중요한 목표임을 인식할 때, 특수고등학교는 제주도내에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특수학교 졸업생들중 그들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의무고용제(장애인의무고용제, '91. 1. 1. 시행령)에 의거하여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행정적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특수학교 교사의 봉급은 일반학교 보다 3만원('74년도 책정액)의 보조비가 더 주어지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교육의 특수성과 교사의 자격을 고려하여 알맞는 대우를 하므로써 그들이 특수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

4) 부녀·아동상담소

제주도내 부녀·아동상담소는 행정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로서 아동상담을 위한 재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아동상담소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의 심신이 건강하게 발달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아동들의 상담과 지도를 하며, 필요한 경우의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다.

아동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경우에 따라 심리·성격검사, 사회관계, 인간관계 조사 등을 실시하고 각 전문가—아동심리학자, 정신신경과의사, 교육자, 사회학자, 사회사업가—들이 사례를 분석, 검토하여 필요한 상담, 지도, 치료를 실시하여 줄 수 있는 시설로서, 일시적 혹은 장기적 지도를 하게 된다.

현재 아동상담소에는 아동을 위한 전문적 상담원, 심리검사 혹은 치료를 위한 전문가와 전문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상담소내에는 반드시 자격증을 갖춘 상담원, 심리치료사가 있어야 하며 상담실, 검사실, 치료실 등이 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5) 일반아동을 위한 복지시설

제주도내 어린이 놀이터는 숫자상으로 123개소가 있다. 놀이터 실태를 조사하여 보면, 대부분의

놀이터가 철재와 시멘트로 만들어진 기본 놀이 기구들을 갖추고 있다. 그네, 시이소, 미끄럼틀, 철봉, 정글짐 등이 기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공공 놀이터기구의 내구성을 감안한 것이라 하여도, 기구의 재료와 색상은 아동들의 특성, 흥미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듯 하다.

지나치게 원색적인 기구들, 또한 기구의 높이나 규격도 6세 이상의 아동들에게 적합한 것들이며, 롤로스케트, 야구, 자전거타기를 즐기는 아동들은 놀이터가 없어 위험한 차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공공놀이터에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어, 어린이들은 뛰어놀다가 갈증이 생기면 집에 가서 물을 마시고 다시 돌아와서 놀이를 계속해야 한다. 최소한 식수 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놀이가 아동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중요한 부분임을 재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의 한 귀절에는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음을 성인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건강하게 열심히 노는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놀이터의 숫자가 많은것 보다는 아동의 흥미와 특성을 배려하여 알맞는 설비를 갖춘 놀이터가 필요하다. 현재 있는 놀이터에 설비를 보충하고 놀이기구의 색상과 재료를 재 정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제주도내 어린이 대공원이 설치되어야 한다. 동양 최대의 식물원이라고 자랑하는 중문관광단지 내의 식물원에는 제주도어린이들이 아닌 성인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들만의 장소가 필요하다. 어린이회관을 건립하는 일도 시급한 일이며, 회관이 설립되면, 그 안에 어린이전용 도서관, 아동상담소, 유아원, 부모상담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난감 도서관을 마련하여 가정에서 더이상 쓰여지지 않는 장난감들, 새로운 장난감들을 배치하여 필요한 가정에 대여한다면 영아들을 위한 좋은 놀이재료가 될 것이다.

제주도내 복지시설문제의 해결대책의 우선 순위를 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무료탁아소 설치
2. 아동상담소 설치
3. 특수고등학교 설치
4. 어린이회관 건립
5. 어린이 대공원
6. 자립지원 시설

Ⅲ. 결론 및 제언

미래의 사회는 사회복지제도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로 변화할 것이다.

1990년대를 위한 제주도 아동복지의 방향과 그 대책을 위하여, 제주도내 아동복지시설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그 문제점과 대책을 서술하였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의 심신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성인인 우리 모두의 의무이며 책임이다.

국가는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속성을 가지고 그 정책을 실천하여야 하며, 복지관계 법령의 강화와 준수를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복지문제가 국가의 정책과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의식이 복지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복지향상을 위하여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우리는 자원봉사와 공공복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하다. 나 하나만 편하고 행복하면, 우리집 아이만 건강하고 공부를 잘하면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와같은 이기적인 사고와 태도는 사회복지를 향상시켜 나가는데 가장 저해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원봉사란, 개인이나 집단 혹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미리 예방하거나 통제하는 일, 또는 개선하는 일이며, 공적·사적조직에서 봉사에 대응하는 보수를 받지않고 자발적으로 봉사를 제공하는 개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자원봉사자란, 사회복지 지식의 유·무에 관계없이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그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의 복지활동에 협력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원봉사를 하므로써, 개인으로서는 타인의 행복과 타인의 복지를 위하여 일하면서, 스스로 한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와 만족감을 갖게되며, 사회에서는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복지에 직접 기여하는 매우 보람된 일이다.

복지제도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일수록 그 국가의 정책과 법령이 우수한 것이기보다는, 많은 복지시설에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 에너지, 경제를 절약하므로써 그것을 타인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인간은 혼자서만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면, 타인들과 더불어 행복해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내 많은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키워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제주도 아동복지 시설에도 많은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방 자치체를 실시하면서, 도 정책에 복지분야를 강화하고, 중점적으로 다루어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를 위하여 제주도 정치인들과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도민들이 복지향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제주도 아동복지 시설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의 모든 아동들이 보다 나은 복지시설에서 혜택을 받으며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성장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일할 수 있을 때, 제주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양순, 濟州道 어린이집 實態調査,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18집, 1984, pp. 495~521.
2. 구자현, 아동복지 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68.
3. 李貞德, 우리나라 兒童福祉 事業의 現況과 未來, 서울: 동국대학교 논문집, 제13집, 1974, pp. 433~461.
4. 이은화, 이경우, 문미옥, 유아를 위한 복지의 이론과 실재, 서울: 창지사, 1990.
5. 이경희, "지역별로 본 우리나라 유아환경의 실태조사와 바람직한 환경의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제1집, 1980. 12, pp. 40~64.
6. 주정일, "우리나라 어린이집 現況分析 및 發展을 爲한 提言", 1973, pp. 1~17.
7. 장인협, 아동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8. 보건사회부, 아동복지사업지침서, 1990, 보건사회부.
9. 제주도, "濟州道 새마을 幼兒園現況", 1982. 9.
10. 제주도, "濟州道 새마을 幼兒園 교사 및 아동취원 현황과악", 1982. 4.
11. 제주도, 아동복지 시설 현황 통계, 제주도, 1990~1991.
12. 한국아동학회,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 "공동학술 심포지움, 아동의 권리: 가정, 교육, 타아", 한국아동학회,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 1989.

<Abstract>

A Study on the Child Welfare System of Cheju-do

Kim, Yang Soon

This paper has been written for my presentation at the UNICEF Seminar for the 1990s' Children and Adolescents of Cheju-d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multi-faceted Child Welfare System in order to facilitate productive and desirable development of Cheju-do's Child Welfare System.

My survey is limited to seven areas of Child Welfare Institutions of Cheju-do : Nursery Schools and Daycare Centers, Single Mother and Child's Home, Elementary or Middle Schools for Exceptional Individuals, Counseling Centers for Women and Children, Orphanages, Teenagers' Home, and Children Centers. The result of the survey is as follows :

1. In the orphanage, the children under the age of 10 need a Korean family's adoption. These children need a place to live or a family to take care of them. The adolescents who have to leave their institutions also need a place or a family until he/she finds a job and becomes an adult person.
2. Nursery schools and Daycare Centers have to multiply their members so that the children under 6 can not only have an opportunity to get preschool education but they can also be protected while their parents are working. The teachers of Nursery Schools and Daycare Centers need better educational background. Their qualification should be restricted to graduates from higher institutions than junior colleges.

3. The required age for compulsory education has to be reduced to the age of 5, compared with the present requirement for 7. Thus, the children under 6 can have an opportunity for free kindergarden education.
4. For the lifelong development of exceptional children and adolescents, Cheju-do needs high schools for exceptional individuals.
5. Counseling Centers for Women and Children should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offices. And the professional counseling office for children must be opened, where a counselor and a therapist—persons who are certified—can have a counselor's room, a psycho-test room, and a therapy room.
6. Public playgrounds for children should be refurnished with play materials and water facilities for children, meeting their safety requirements.
7. Cheju-do's Child Welfare System needs voluntary workers because of the midget budget. It is necessary that authorities of Cheju-province government support its Child Welfare System financially as well as politically to establish the innovative and desirable Child Welfare System.